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10월 6일 ( 제1023호 )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 우 컬 럼

##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번 서울시청광장 기도성회에 금식하며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께 주님의 축복이 금세와 내세에 충만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 집회도 여러분의 기도와 희생, 헌신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국가가 없는 백성은 국가가 있는 개보다 못합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보세요. 나라를 잃고 이리저리 떠도는 그 사람들을 보세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없다는 자체만으로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국가는 있으나 힘이 없는 나라도 행세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변국에 의해,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강성한 우리나라,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히 이 나라를 얕보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한 대한민국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도성회에 알게 모르게 애써주신 여러분, 기도해주신 여러분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동역자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주역들입니다. 다윗에게 37명의 동지가 있었다면 저에게는 여러분이 최고의 동지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러분을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나라에 대내외적으로 평화가 찾아올 때 우리 함께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2:14)

# 이 나라에 평화를 이루자

우리는 지난 10월 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함께 기도했고,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믿고, 기도한 대로 이 땅에 이뤄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대내외적으로 평화가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롬8:31)?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쥐고 있는 핵도, 일본의 간교한 궤계도, 국내외적인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계란만 깨지고 낭비될 뿐, 바위는 끄떡도 없습니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 대결은 멸망과 불행이요 협력은 성장과 행복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15:1).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는데,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구쳤습니다. 샘의 근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서도 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창26:24).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을 피해 외가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 길에 루스(벧엘)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려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찌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28:15).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 되어도, 앞길이 불투명해도, 사방 우겨쌈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답 부답하고 억울한 현실은 그저 허상일 뿐,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평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 우리에게도, 이 나라에게도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모세에게 바통을 물려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수1:5~6). 모세 역시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유언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신31:7~8).

실컷 기도해놓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장래에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외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적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울 때 '너 죽고, 나 죽자'는 말을 잘합니다. 죽을 바에는 같이 죽자는 겁니다. 정말로 싸우면 진짜 둘 다 죽습니다.

아침 햇살이 좋아 입을 벌리고 있는 조개를 도요새가 부리로 쪼니 조개가 도요새의 입을 꽉 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엉켜 싸우고 있을 때, 마침 어부가 이를 보고는 도요새와 조개를 잡아 망태 속에 잡아넣었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이 '어부지리(漁父之利)'입니다. 서로 싸우면, 서로 분쟁하면, 서로 대결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말입니다.

여야가 계속 싸우면 얼씨구나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노사가 싸우면 좋아하는 곳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싸웁니까? 진정 누구를 위한 싸움이고, 누구를 이롭게 하는 싸움입니까? 뱀도 자기네끼리 싸울 때는 독을 품지 않고, 말도 싸울 때 머리로 밀망정 절대 치명적인 뒷발질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한 배를 탄 사람들끼리 다투고, 왜 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끼리 대립합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공멸할 뿐입니다. 공생해야지요. 상생해야지요.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잘 가지 않겠습니까? 대립과 대결은 멸망이요, 불행일 뿐입니다. 바다에 사는 게는 물고 뜯는데 선수입니다. 게를 큰 그릇에 담아놓으면 밖으로 나오려고 기어올라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게가 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게를 잡아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놈이 또 끌어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게를 두 마리 이상만 넣어 놓으면 거의 도망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로 물고 뜯기 때문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5:15). 게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끼리 게처럼 굴면 나라에, 기업에, 가정에 발전이 없습니다. 올라가게 도와줘야지요. 그러면 먼저 올라간 자가 손을 잡아 끌어주지 않겠습니까?

## 믿는 데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으로 가는 레일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에 싸움이 없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기에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기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기에 다투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기에 싸움이 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기에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고전13:4~7).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요13:34).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고 대립하고 미워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 함께 손잡고 잘 되는 길, 모두가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 곧 플러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더해지는 삶,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명의 친구를 보십시오. 서로 협력하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친구의 병도 고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명이 협력하고 협동하니 사람이 많은 중에도 지붕을 뚫는 기지를 발휘하여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줄보다 삼겹줄이 나은 법입니다(전4:12). 우리가 협력하여 대결의 구도를 버리고 협력의 구도를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돕는 길을 여사 이 나라의 난국을 타개하고 열방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시며 한 가지 당부를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6~17).

아담에게는 무한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 금지령은 하나님과 아담을 잇는 유일한 매개체였다. 아마 이 명령조차 없었다면 아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계신지 인식조차 못한 채 마음대로 살아갔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금지령이 있었기에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키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니, 이것이 곧 아담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도 기억하겠다고 거듭 말씀하신다.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신 무지개 언약(창9:8~17),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출2:24), 이 약속을 기억하시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나를 기억하라고 강조하신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가득하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20:8). 그냥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다. 기억하여 지키라 하신다. 곧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다. 목사님께서 일기를 쓰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기억하기 위함이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면 은혜를 잊고 방종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이적의 역사를 망각하자 그들의 삶이 어찌 되었던가?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인들에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로 삼으라고 강조하지 않던가(고전10:1~12)?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멸망해갔는지 기억하고 이를 거울삼으라는, 곧 역사인식을 가지라는 당부이다.

역사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었는지 기억하여 우리의 역사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함 아닌가?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이미 사는 게 아니다. 기억상실이 무서운 질병으로 현대인들에게 다가오는 현실만 보아도 그렇다. 기억하고 지키며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 아니 온 인류에게 정말 값진 일이다.

'기억하옵소서', '추억하옵소서', 히스기야, 느헤미야의 기도다.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된 삶을 사는 것,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있을까?

Henry Han

:: 웅달샘 ::

# 빨리빨리

몇 해 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들 눈에 비치는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1.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종이컵이 있는 곳에 손을 집어넣어 컵 잡고 기다리기
2.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버스 뒤따라 뛰면서 추격전 벌이기
3.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지퍼 내리기
4. 삼겹살 익기도 전에 먹기
5.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닫힘' 버튼 누르기
6. 컵라면 익는 3분도 되기 전에 뚜껑 열기
7.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기
8.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기
9. 웹 페이지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리기
10.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뒤 먼저 마시고 계산하기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예배 때 축도가 끝나기 전에 미리 문 앞쪽에 가 서 있거나 목사님께 안수 받으려고 앞쪽으로 나오기. 공감하시죠?

'빨리빨리'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급함이 옳은 건 아닙니다. 우물에서는 절대 숭늉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급해서 얻을 건 실수와 낭패뿐이니까요.

기다릴 줄 아는 삶, 여유 있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잠14:29).

**예수중심편집실**

:: 신앙논객 ::

#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만

시청집회 준비에 한창이던 때, 한 선임 교역자로부터 나와 내 부서 아이들이 처신을 잘못했다는 오해를 받았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일단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억울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수고한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여겨지는 것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당사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오해했던 교역자와 대화를 통해 오해는 풀었지만, 이미 상해버린 기분과 찝찝한 마음은 이후로도 며칠간 이어졌다. 어렸을 때부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잘 참지 못하고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았는데, 주의 종이 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게 며칠 마음고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오해할 권리가 있다!'는 목사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질문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은 어떡하고요? 그들이 오해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줘도 그냥 내버려두란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다고 오해받았던 모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요, 신성모독자라고 오해받았던 예수님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다. "사람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갔고,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게 아닐까. 그러고 나니 작은 일에 억울해하며 오해를 풀려고 전전긍긍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만인 것을. 하나님이 다 신원해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왜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단에서 말씀을 안 해주시나요?" 한 친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글쎄, 그걸 일일이 해명 변명할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오해할 사람들은 오해한다. 목사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지금까지 당신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억울해할 것 없다. 우리의 열매가 우리를 증명할 테니까.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 생명의 말씀 ::

# 하나님께 감정노동 하는가?

초등학교 2학년 둘째 아들의 유치원 시절 재롱잔치 때의 일이다. 드디어 아들 순서다. 여태까지 연습해온 것으로 봐서는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서 밝게 웃고 춤추는 것이 당연한데, 무슨 문제일까? 아들은 웃지도, 움직이지도, 춤을 추지도 않고 맨 끝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다. 각각 양손의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교차하여 걸고 서서 마치 '재롱잔치 보이콧'을 선언하기라도 하듯 말이다. 너무나도 황당한 재롱잔치가 끝나고 이유를 긴급히 물었다. 기상천외한 대답을 한다. '사람들 앞에서 기쁘지도 않은데 왜 억지로 웃으면서 춤을 춰야 해요?' 굳이 해석하자면, 감정노동 하기 싫다는 거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으나 더 이상 질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들의 감정을 받아들여주기로 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 한때의 걱정과는 달리 지금 그 아들의 '지정의(知情意)'는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으며, 반에서 리더역할도 잘 감당한다.

본의 아니게 감정노동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참 많다. 억압되어 있다. 감정의 유연함과 건강함이 필요하다. 전 인격이 건강해지려면 너무 심각하게만 살지 말고, 웃을 수도 있어야 하고 동시에 울 수도 있어야 한다. 요셉의 묵은 감정은 언제 치유되었는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과의 재회 당시, 주변인과 바로 궁정에 다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한 후였다. 이 감정을 숨기고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최상의 고백이 나오지 못했다(창45:1~5).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친히 체휼하셔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나아오라 하신다(마11:28). 맹인 바디매오처럼 울부짖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태연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외식하며 감정노동 하지 말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울며 나아가자!

'어려서 울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몸이 운다!'는 말이 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살면, 나이 들어 육체의 병으로 온다는 말이리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감정의 건강함이 회복되어야 하겠다. **송직화 목사**

:: 일본에서 온 편지 ::

# 마땅히 해야 할 것과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뜨거웠던 얼마 전 아침에 학교 가는 아들을 전철역까지 태워다주었는데, 느닷없이 아들이 "이렇게 뜨거운데 그늘로 가시지, 위험하게 왜 하필이면 땡볕에 누워계시지?" 라고 하길래 둘러봤더니 역 앞 벤치에 노숙자 한 분이 누워계셨다. 아들에게 "가서 땡볕은 위험하니 그늘로 가서 쉬시라고 전해라."고 했더니 바로 옆에 경찰이 있었다. 경찰이 있어서 괜찮겠다고 아들은 전철 시간에 늦을까봐 뛰어갔고, 주의 종은 하늘을 보며 "주님,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시고 바람을 보내어 저분이 좀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에 운동을 마치고 역 앞으로 걸어가는데 아침에 그 노숙자분이 하늘을 쳐다보며 쓸쓸히 앉아계셨다. 계단을 반 정도 내려가다가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는 마음에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지갑에서 돈을 얼마 꺼내어 "이걸로 식사라도 하세요." 하고 드리면서 "예수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안다고 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순수한 아기처럼 해맑고 환한 얼굴로 방긋이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고맙다고 했다.

돌아오면서도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이상할 만큼 지워지지 않고 뇌리에 곱게 남았다.

다음날도 운동 마치고 오는데 앉아계시길래 길을 건너가서 조금의 돈을 드리며 "식사라도 하세요. 기도할게요." 하니 정말 기뻐하며 받으셨고, 주의 종은 교회로 향해 걸어오면서도 그분에게 살길이 열리기를 기도드렸다.

그렇게 그 노숙자를 만나 며칠이 지났는데 비도 오고 기온도 떨어지고 쌀쌀해져서 그분이 걱정되었다. 다음날 아침에도 비는 계속 와서 아들을 역까지 태워다 주면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성도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산 트레이닝복이 한 벌 남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아들에게 그 노숙자 아저씨에게 전해드리라고 했더니, 아들도 엄마의 마음을 알았는지 "응." 하면서 들고 가서 "따뜻하게 입으세요." 하고 드렸다. 엄마이기도 한 주의 종은 그 노숙자가 걱정되어 부탁한 것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트레이닝복을 들고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전해준 아들이 지금은 비록 믿음 위에 아직 온전히 서지는 못했지만 주님께 감사했다. 아들의 믿음을 위해 늘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고운 마음을 가진 아들이다. 안심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기도 응답처럼 느껴졌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히10:36).

주일예배 설교 때 구제와 어려운 자들을 돕자며 이 간증을 했더니 "아~, 나도 봤어요. 역 앞에 요즘 한 며칠 보이데요!"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어느 성도님은 일부러 얼마의 식사비를 가지고 그 노숙자를 찾아갔는데 안 계시더라고 했다. 일부러 찾아간 그 성도님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고, 주의 종은 힘을 얻었다.

그 후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주의 종은 그 해맑은 미소와 얼굴에서 예수님을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런 사람들 돈 줘봐야 술 사 마셔! 그러니까 돈 줄 필요 없어!" 라고 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말씀대로 행하였다면 그걸로 됐지 그 후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12:3).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 참된 깨달음 ::

# 복된 언약! 참된 나라!

'갓 블레스 아메리카(God Bless America)'는 본래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만, 지금은 별 뜻 없이 애국심만 자극하는 전쟁구호가 된 듯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주신 가장 큰 복은 부와 세계지배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 즉 복음을 전할 자유, 교회의 영적 성장과 심령의 부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이 나라를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각기' 회개하지 않으면 국가도, 교회도, 개인도 절실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개할 대상은 첫사랑을 잃고 영적인 권태와 무기력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계2:4)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대한민국이 받을 복을 결정하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정치 전략과 법령 시행으로 국가적 부흥이 일어난 예는 없습니다. 참된 회복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일어났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 이교도의 도시 전체가 베옷을 입고 재위에 앉아 회개했을 때(욘3:4~10), 조지 휫필드의 통렬한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 때 일어났지요. 참된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대하7:14)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 받도록(딤전2:4) 기도해야 합니다.

10월 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있었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통해 회복과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이 복된 언약을 통해 참된 복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김정옥 전도사**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 주안에서의 삶 ::

# 하나님의 장막 시리즈 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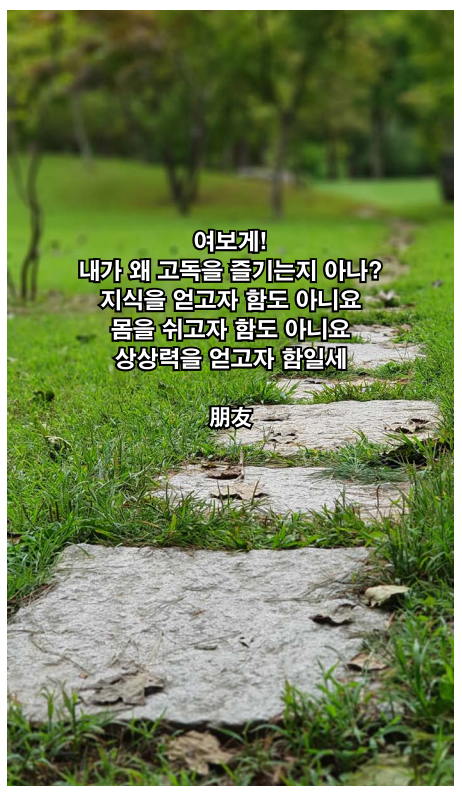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하시는 곳을 에덴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에 세우시고자 했던 계획이 아담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하여 어그러졌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시며, 죄로 인하여 모두 지옥으로 갈 인간들을 구원하는 길을 여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임으로(창2:17, 롬6:23)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성령)을 주시어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중생)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의 기초는 예수님이며, 그 집이 지어지는 재료는 금, 은,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헌신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의 공적은 나중에 불로 시험하여 그 세운 공적이 남아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3:9~16). 온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금이나 은과 같이 강하면서도 아름다운 재료로 이루어진 성전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실하고 성숙한 크리스천들을 볼 때, 그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바로 그들 안에는 그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과 삶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각 믿는 사람의 마음 안에 거하게 될 뿐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도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전으로서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고, 그 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엡2:21~22).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엡3:19), 그곳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거니시며 그곳에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그곳을 거니실 때 바로 그 교회가, 소그룹이, 혹은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단지 건물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든, 가게에 모여서 기도하든, 가정에 모여서 구역예배를 드리든, 그 어느 곳도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로 바뀌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한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감으로,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성전)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결국 전 세계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아직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 사단의 역사와 공격으로 하나님 왕국의 계획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태초의 계획을 이루실 것인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문선 선교사**